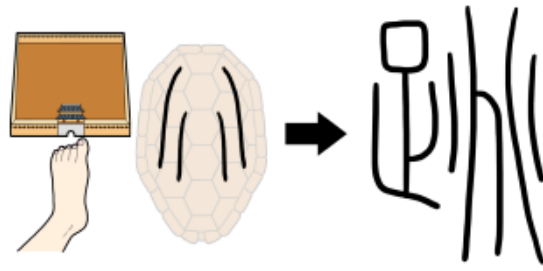


## 형성문자①



跳

跳자는 '뛰다'나 '도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跳자는 足(발 족)자와 兆(조짐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兆자는 거북의 배딱지(復甲)에 난 점괖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고대에는 跳자가 '뛰다'나 '도망가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 그러나 지금은 𨇔(갈 착)자와 兆자가 결합한 逃(달아날 도)자가 '도망가다'라는 뜻으로 분리되었고 跳자는 '뛰다'나 '도약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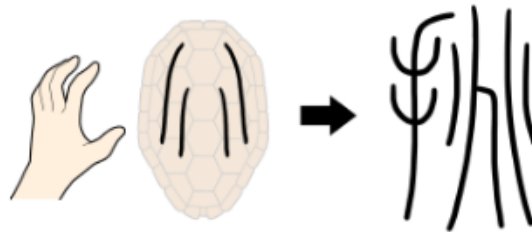
𨇔

소전

跳

해서

## 회의문자①



挑

挑자는 '부추기다'나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挑자는 手(손 수)자와 兆(조짐 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兆자는 갑골에 나온 점괖를 그린 것으로 '조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조짐'이라는 뜻을 가진 兆자에 手자가 더해진 挑자는 '가려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갑골에 나온 여러 징조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손으로 가려 추려 낸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가려내다'였지만 후에 점괖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하여 '도드라지다'나 '드러내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뛼울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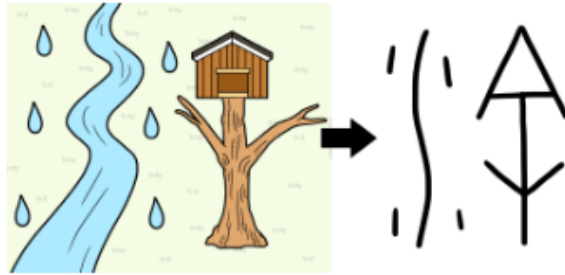
𢦏

소전

挑

해서

## 형성문자①



塗

칠할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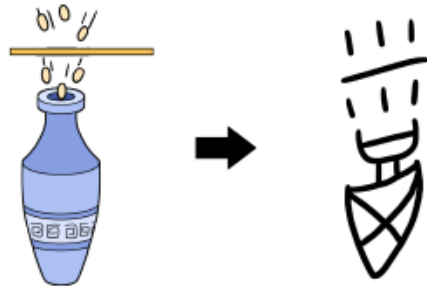
塗자는 '진흙'이나 '길', '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塗자는 土(흙 토)자와 涂(칠할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涂자는 본래 강 이름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지만, 강 주변에 진흙이 많았는지 후에 '진흙'을 뜻하게 되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土자가 더해지면서 塗자가 흙과 관계된 글자임을 표현하게 되었다. 塗자에 '칠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은 고대에는 벽에 진흙을 발라 열기를 차단했었기 때문이다.

갑골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稻

벼 도

稻자는 '벼'를 뜻하는 글자이다. 稻자는 禾(벼 화)자와 舀(퍼낼 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舀(퍼낼 요)자는 항아리 위에 손을 얹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퍼내다'라는 뜻이 있다. 稻자의 갑골문을 보면 항아리 위로 米(쌀 미)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탈곡한 곡식의 낱알을 항아리에 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금문에서는 米자가 아닌 禾(벼 화)자가 쓰이게 되면서 곡식의 낱알이 아닌 벼를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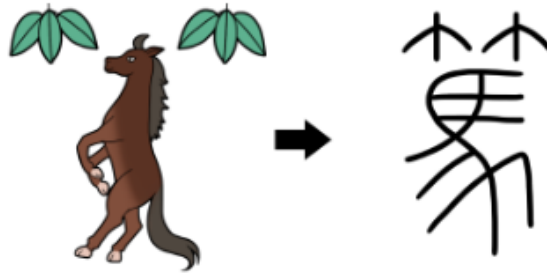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篤

도타울  
독

篤자는 '도탑다'나 '진심이 깃들여 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篤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馬(말 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篤자에서 말하는 '도탑다'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에서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篤자는 본래 말이 걷는 모습을 표현했던 글자였다. 하지만 말이 천천히 걸거나 안정적으로 걸을 때 나는 말발굽 소리가 마치 대나무발에서 나는 소리처럼 부드럽다 하여 후에 '진심되다'나 '견실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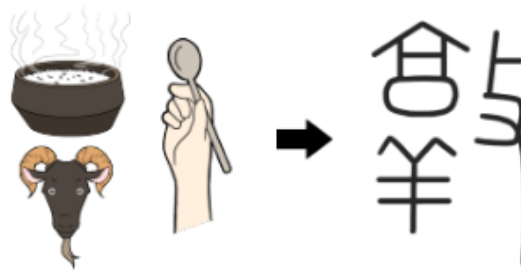
篆

소전

篤

해서

## 회의문자①



敦

도타울  
돈

敦자는 '도탑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탑다'라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 '사랑이나 인정이 많다'는 뜻이다. 敦자는 亨(누릴 향)자와 勹(칠 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금문에 나온 敦자를 보면 가마솥과 양의 머리가 함께 <sup>敦</sup> 그려져 있었다. 여기에 수저를 들고 있는 손까지 있으니 이것은 양을 삶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敦자는 본래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양고기를 삶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풍부하다'나 '너그럽다', '소박하다'라는 뜻을 표현했던 글자였다. 하지만 후에 글자의 구성이 달라지면서 본래의 의도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敦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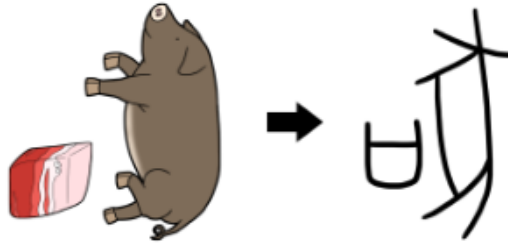
敦

소전

敦

해서

## 회의문자①



豚

돼지 돈

豚자는 '돼지'나 '새끼돼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豚자는 月(육달 월)자와 豕(돼지 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豕자가 이미 돼지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豚자는 사육의 개념이 적용된 글자이다. 豚자에 쓰인 月자는 '고기'를 뜻하는 肉(고기 육)자가 변형된 것이다. 여기에 豕자가 더해진 豚자는 '돼지고기'나 '식용돼지'라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손을 뜻하는 又(또 우)자가 豕 더해지기도 했었는데, 제일 손이 가는 음식, 그러니까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돼지를 뜻하는 다른 글자로는 豨(돼지 저)자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즐겨 먹는 제육볶음은 사실 저육(猪肉)볶음이 잘못 표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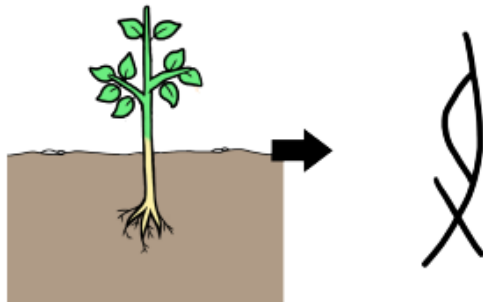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 회의문자①



屯

진칠 둔

屯자는 '진을 치다'나 '수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屯자는 巾(원손 좌)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순'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屯자를 보면 초목이 올라오는 彡 모습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屯자는 이렇게 초목이 올라오는 모습으로 그려져 '봄'을 뜻했었다. 그러나 후에 屯자가 '진을 치다'나 '수비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艹(풀 초)자와 日(날 일)자를 결합한 春(봄 춘)자가 '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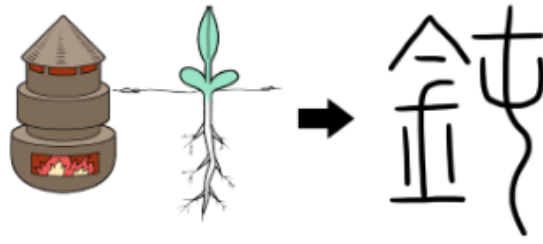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형성문자①



鈍

둔할 둔:

鈍자는 '둔하다'나 '무디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鈍자는 金(쇠 금)자와 屯(진 칠 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屯(진 칠 둔)자는 초목이 올라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밭을 역할만을 하고 있다. 鈍자는 본래 칼이나 도끼의 날이 무뎠던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무디다'였다. 그러나 지금은 무뎠던 칼날처럼 섬세하지 못한 사람에 비유되어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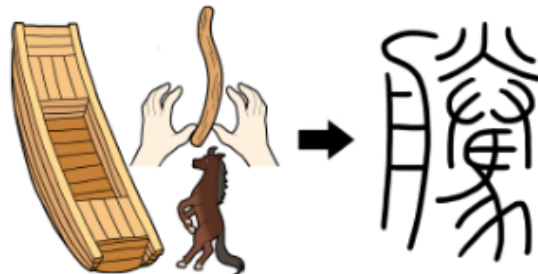
鈍

소전

鈍

해서

회의문자①



騰

오를 등

騰자는 '오르다'나 '도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騰자는 朕(나 짐)자와 馬(말 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朕자는 막대기로 배를 모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騰자에서 말하는 '도약하다'라는 것은 말이 멀리 달리기 위해 앞발을 구르며 펄쩍 뛰는 뜻이다. 그러니 배를 끌고 가는 모습의 朕자와 馬자가 결합한 騰자는 말이 크게 도약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폭등(暴騰)'이라고 하면 물가나 주가가 크게 뛰어오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騰

소전

騰

해서